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9호 【루계 제2517호】

주체107(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음력 10월 17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사상교양거점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꾸리고 어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생산장성과 기적창조의 기본열쇠도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달려있는것만큼 첫째도 둘째도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앞으로도 공장당조직이 지금처럼 계속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로동계급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음으로써 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변심없이 굳센 의지와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로선을 맨 앞장에서 받들고 헤쳐나가는 투사들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보적인 영상사진문헌들과 사적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 대관유리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굴지의 광학유리생산기지로 전변되여왔다고, 지난 기간 공장의 로동계급은 국가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광학유리제품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견실하게 당정책을 받들어왔다고 하시며 공장로동계급이 걸어온 투쟁행로를 값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 생산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공장에서 새로 생산하고있는 유리제품들과 광학기재들을 보시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광학측정설비들을 개발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 기술도입과 기술혁신투쟁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광학측정설비들을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의 제품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대관유리공장에서 만든 유리제품들과 광학기재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발전해가고있다고, 지금의 현대화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공정과 제품검사공정에 대한 현대화사업과 새 기술도입사업에 계속 힘을 집중하여 더 좋은 광학유리와 측정설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모르고 로동생활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합숙과 구내식당도 잘 지어주고 문화후생시설도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건설자재가 보장되지 못해 건설을 다그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시고 현지에서 대책을 취해주시는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판문점은 길이 전하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채택으로 삼천리강토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위한 새시대가 펼쳐졌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의 극적인 변화발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민족을 위하시는 원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 주동적이고 통이 큰 결단과 포옹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경륜과 의지에 의하여 판문점과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련이어 마련되고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새 전기가 열리게 되였다.

기나긴 세월 민족분렬의 비극을 증견하는 력사의 현장,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력사의 한복판에서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판문점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두차례 상봉하고 회담하시여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신 판문점에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지니시고 통일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공화국은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최대의 시련을 겪고있었다.

이것을 기화로 적대세력들과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은 공화국에 대한 압살책동을 더욱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공화국의 인민들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지켜내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던 준엄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찾으신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겨레에게 자주통일의 밝은 희망과 락관을 안겨준 력사적장거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친필이 새겨진 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담고 숭엄히 서있는 친필비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친필로 비준하여주신 력사적문건이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였다고, 수령님께서는 그때에도 밤을 지새우시며 두툼한 문건을 다 보시고 활달한 필체로 친히 존함과 날자를 써주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분망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문건에 친필을 남기시였다고,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판문점에서 울린 그날의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온 겨레의 념원대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어리여있었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선물을 안겨주시려는 민족적거사》,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펴올리신 민족의 일대 장거》,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신 력사적쾌거》라며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을 대서특필하였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통일장정이 빛나는 판문점에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한걸음에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고 판문점을 찾으시고 력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수개월후에는 평양에서 력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올해에만도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되였으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래일을 더욱 신심드높이 마중가게 되였다.

조국통일성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유훈대로 분렬의 비극을 통일의 환희로 바꾸실 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밝고 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 쌓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판문점은 길이 전하리라.

본사기자 주일봉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지난 10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또다시 찾으신 소식이 신문과 TV방송으로 보도되였다.

그날 북부고산지대에 있는 삼지연군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있었다. 수많은 살림집들과 거리, 봉사시설물들이 새로 일떠서고있는 삼지연군읍은 하얀 눈천지였다. 그 눈을 밟으시며, 내리는 찬눈을 맞으시며 올해에만도 이곳을 세번째나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펑펑 쏟아지는 흰눈이 외투자락에 수북이 쌓이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이께서는 읍지구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완공된 살림집에도 들리시여 주민들이 쓰고살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자들을 치하하기도 하시였다. 백두산아래 첫동네인 삼지연군을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폭염이 지속되는 지난 여름철에 이어 눈내리는 10월에도 또다시 이곳을 찾아주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궂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돌이켜보면 올해의 삼복철은 례년에 없는 고온현상으로 밤에조차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잠간 서있기만 해도 순식간에 덮치는 폭열속에 금시 숨이 막히는것만 같고 그늘속에 가만히 앉아있자고 해도 땀으로 미역을 감는것 같아 그 더위를 가시고저 사람들이 물놀이장으로, 해수욕장으로 달려가고있던 올해의 여름철이였다. 그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평안북도를 찾으시였던 그 걸음으로 량강도에로, 또 함경북도에서 강원도, 황해남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로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그이이시라고 왜 겨울이면 따뜻한 온돌방이 그립지 않고 여름이면 시원한 해변가를 거닐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기쁨도, 보람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시며, 찬눈비를 맞으시며 초인간적인 현지지도강행군길에 계시는것이다.

그이께서 인민들이 리용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보아주시던 그날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날이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색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반년전에 비하여 질이 월등하게 개선되였다고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백점만점짜리라고 하시였다. 그때 그이의 옷깃은 련속 흘러내리는 땀방울들로 하여 흠뻑 젖어있었고 그 현지지도보도를 TV로 접하던 사람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이라고,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고 하시며 일군들이 장군님식인민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몇해전 겨울에는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시고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아가자는 친필을 일군들에게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커만가고있는것이다.

김철원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립체률동영화에도

주체102(2013)년 7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립체률동영화관 유희기재를 자체로 개발하였다는것을 아시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립체률동유희기재를 자체로 개발한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개발한 립체률동유희기재를 유희장들과 공원들에 차려놓으면 청소년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릉라도에 립체률동영화관을 멋쟁이로 잘 건설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영화관건설을 발기하시고 설계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일군들에게 립체률동영화관을 릉라인민유원지의 어느 위치에 건설하는것이 좋겠는지 위치부터 선정하라고 이르시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게 립체률동영화관을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하시였다.

다시 나타난 《소년장수》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찾으시였다.

만화영화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우리 인민의 사상과 감정정서에 맞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고정격식화된 틀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주제령역을 넓히고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촬영소에서 이미전에 만든 만화영화 《소년장수》는 인기가 대단했다고, 지금은 50부에서 끝냈는데 앞으로 100부까지 더 만들어내놓으면 아이들과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련속편으로 만드는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높은 애국심과 상무기풍, 미풍량속,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이야기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창작방향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

지금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공화국을 변화시키며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은 남들이 가지고싶어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강국건설의 힘찬 진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되게 하는 기본요인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진 일심단결에 있다.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인 결합, 령도자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인민들이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일심단결의 위력은 공화국이 사상최악의 집요하고 악랄한 제재압박과 위협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게 하고있다.

인민도 좋은 인민이지만 령도자가 위대하여 일심단결의 거대한 화원이 펼쳐지게 된것이다.

최근 몇달동안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이어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통해서도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령도력과 고매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다.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고온과 무더위속을 뚫고 그이께서 찾으신 단위는 그 얼마이며 걸으신 길은 몇천리이던가. 그 길에서 태여난 감동깊은 일화들은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해주었다.

굴지의 련어생산기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해바다에서 양어한 대서양련어와 가공품들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집중적으로 보내주어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고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 가시여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숨이 막히는것만 같고 그늘속에 가만히 앉아있자고 해도 땀으로 미역을 감는것 같아 그 더위를 가시고저 사람들이 물놀이장으로, 해수욕장으로 달려가고있던 올해의 여름철이였다. 그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평안북도를 찾으시였던 그 걸음으로 량강도에로, 또 함경북도에서 강원도, 황해남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로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그이이시라고 왜 겨울이면 따뜻한 온돌방이 그립지 않고 여름이면 시원한 해변가를 거닐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기쁨도, 보람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시며, 찬눈비를 맞으시며 초인간적인 현지지도강행군길에 계시는것이다.

그이께서 인민들이 리용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보아주시던 그날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날이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색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반년전에 비하여 질이 월등하게 개선되였다고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백점만점짜리라고 하시였다. 그때 그이의 옷깃은 련속 흘러내리는 땀방울들로 하여 흠뻑 젖어있었고 그 현지지도보도를 TV로 접하던 사람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이라고,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고 하시며 일군들이 장군님식인민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몇해전 겨울에는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시고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아가자는 친필을 일군들에게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커만가고있는것이다.

김철원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고있다.

동해지구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철길건설이 완공되여 개통하였고 삼지연군꾸리기, 단천발전소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기계제작공업분야에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었고 방직, 신발, 일용, 식료 등 경공업과 과수, 양어, 축산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이 빨리 발전하여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국가의 전략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은 자력갱생이며 국가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식으로 살아나가는 자력갱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경제, 지식경제를 건설하는 길도 자력갱생에 있다.

지난 5월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비약하는 우리 국가의 막강한 주체적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다고 하신 해상철길은 선진과학기술과 우리 식의 새 공법들을 도입하여 건설하였다. 고암—답촌철길건설에 참가한 철도운수부문의 한 기술자는 우리에게 필요한것, 우리가 마음먹은것은 우리 식으로 무조건 한다고 말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경제의 잠재력은 크며 지식경제의 발전전망은 밝다.

《봄향기》화장품으로 소문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는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질좋은 화장품을 다량생산하고있다.

지난 6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반공정에서 무인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였으며 수지용기생산설비와 접착상표인쇄설비를 보충하여 용기를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제품들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공장을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기술집약형공장으로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분장용화장품과 차향수, 위생실향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많이 개발생산할데 대한 문제 등 화장품생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칠 때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는것을 오늘의 현실은 보여주고있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도 160여가지의 맛좋은 당과류와 식료가공품을 생산하여 사람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있다.

지난 여름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넣어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이 인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제품,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속에 삼지연군은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꾸려지고있고 아름다운 동해기슭의 명사십리에 건설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인파십리로 변모될 그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 10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설계상, 공법상요구에 맞게 공사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있지만 시련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제재봉쇄책동은 집요하고 끈질기다. 무역과 투자, 자금류통은 물론 어린이들의 놀이감으로부터 인민들의 필수생활용품, 체육기재에 이르기까지 생존공간의 모든 령역에 걸쳐 강행되는 가장 비렬하고 극악한 고립압살책동이다. 그러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도 자립, 자력, 자강의 굳건한 토대와 잠재력을 가진 우리 국가와 인민을 질식시킬수도, 굴복시킬수도 없다.

조선을 다녀간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은 포악무도한 제재를 세계는 알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그 어떤 제재도 이 나라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한 인사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는 북에 대한 제재의 산물은 백기투항이 아니라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성과물이라고 하였으며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인터네트에 낸 글에서 이북은 사상최악의 집요하고 악랄한 외부적압박과 위협을 이겨내고 세계진보력량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내달리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기어이 부강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강용한 의지이며 배짱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따라 공화국은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생산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리명진

고암—답촌철길

새형의 궤도전차

서울은 감격의 그 순간을 기다린다

인터네트홈페지《구국전선》(http://www.aindft.com)에 《서울은 감격의 그 순간을 기다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글전문은 다음과 같다.

* *

환희와 격정의 물결이 온 남녘땅을 휘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곧 서울에 나오신다.》

민족사적대경사로 되는 희보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며 이 땅 골골을 크나큰 흥분과 격정의 도가니로 끓게 하고있다.

위인맞이준비로 들썩이는 서울장안, 곳곳에서 조직된 환영준비위원회들의 활기띤 움직임, 갈수록 고조되는 환영열기와 격정의 파도…

경향각지에 굽이치는 절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물결은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에 대한 우리 민중의 열화와 같은 흠모심과 경하의 분출이며 그것은 새로운 전성기에 들어선 민족의 앞길에 사변적의미를 더해주고있다.

환영준비열기로 뜨거운 서울

마가을의 쌀쌀함이 느껴지는 11월이라지만 지금 서울은 꽃피는 봄날마냥 환희로 설레이고 환영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낮에는 낮대로 《**김정은**국무위원장 서울방문 환영》이라는 프랑카드와 꽃묶음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밤에는 밤대로 초불을 든 사람들이 불의 바다를 펼치며 환영열을 띄우고있다.

《**김정은**위원장님 서울 오시면 남녀로소모두 떨쳐나 환영합시다.》라는 웨침은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서울의 기쁨과 환희를 한껏 부풀게 해주고있다.

서울한복판에 **김정은**위원장님의 영상사진을 모신 대형선전물이 게시되여 이목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벌써부터 《**김정은**》, 《만세!》를 련호하며 환영의 꽃물결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일대 사변의 날을 의의깊게 맞이하기 위해 곳곳에서 기념강연, 남북수뇌회담소감발표회, 남북수뇌회담사진전시회, 단일기게양, 우표제작, 북노래보급, 시민환영단, 축하상경단, 자원봉사대활동, 기념홈페지운영 등 다채로운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환영음악회 및 통일박람회, 북을 바로 알기 위한 동영상보여주기, 청년학생환영단 모집, 환영소품과 선물준비, 통일강연, 환영선전물게시, 환영문화행사 등 다양한 모임들로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어린이들까지 가세하고있다.

서울세종로공원에서 진행된 《백두산어린이합창단》의 《백두산에 올라》라는 제하의 노래공연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남녘의 동심을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민심을 반영한 시 《오셔요》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는것인가.

《…

오신다면
길목마다 곳곳마다 색색의 꽃들은
아침저녁으로 향기뿜으리이다
새들은 나무가지 옮겨다니며
청아한 소리로 노래부르리이다
맑은 눈망울의 아이들 몰려와
꽃과 새와 더불어 뛰고 웃으리이다

오시면
다시 오시면
평양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녘인민들의 환호에 화답하듯
기꺼이 달려가 맞으리이다
하나의 땅, 하나의 피줄인 우리
푸른 반도 펄럭이는 기발로
펄펄 뛰는 심장으로
통일마중 기꺼이 달려가리다
…》

어디를 보아도 그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절세의 위인을 모실 날을 오매불망 고대하는 절절한 마음들을 읽을수가 있다.

그속엔 마음뿐 더 잘 모시지 못할가 걱정부터 앞세우는 정치인의 남다른 《고민》도 있고 정작 만나뵈오면 무슨 말씀부터 올릴가 마음울렁이는 사람들의 소박한 진정도 비껴있다.

그 마음과 진정이 모아져 서울에서는 《**김정은**국무위원장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청송위원회》와 《**김정은**국무위원장 서울방문환영 청년학생준비위원회》도 결성됐다.

백두청송위원회 결성선언문의 구절구절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가.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분단의 철망도, 가슴속 응어리도 일거에 녹일 민족사의 쾌거》, 《민족의 량심을 가진이라면 모든 차이를 넘어 가슴벅차게 **김정은**위원장 서울방문을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모두 환영준비로 서울시내를, 각지를 평화의 꽃물결, 통일의 꽃바다로 만들자.》…

그것은 그대로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온 경향, 온 겨레의 민족적자긍심의 분출이며 이 땅 민중의 가슴속에 맥박치는 열렬한 흠모심의 발현이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을 뜨겁게 맞이하자.》, 《만나야 통일이다.》

남녘청년들의 이 한결같은 웨침도 11월의 대지를 한껏 달구어주고있다.

얼마나 절절한 그리움인가.

얼마나 뜨거운 화폭인가.

꼭 해방직후의 광경을 보는것만 같다.

서울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던 때로부터 어언 70여년.

《조선해방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했던 그 나날 서울역광장에 솔대문 세워놓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서울입성을 안타까이 기다리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사연깊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잊지 못할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수십만 서울시민들이 앞을 다투어 구름처럼 모여들던 서울역이며 정갈한 소나무의 푸른 아지들을 고르고골라 정성껏 솔대문을 만들어 세우던 남녀로소들, 주석님께서 하루빨리 서울에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각계층의 모임들과 장내를 세찬 흥분으로 설레이게 한 열기띤 연설들…

새겨보면 해방년의 그 나날 경향각지의 민중이 주석님의 서울입성을 그리도 학수고대했던것은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적영웅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였다.

세월의 언덕을 넘고넘어 그때로부터 70여년이 흐른 오늘 그날의 감동적인 정경이 또다시 서울을 비롯한 남녘 곳곳에서 생생히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오랜 세월 산같이 쌓아온 그리움, 고대하고 고대하던 소원이 풀릴 행운의 날을 앞두게 되였으니 어찌 거대한 충격의 해일이 일어번지지 않을수 있으랴.

감격의 눈시울 적시며 추억의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수록 가슴을 쩡하게 울려준다.

통일년의 그날엔 해방년의 그때보다 더 큰 환영문을 세우고 통일의 큰 대문으로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을 맞이할 하나의 소원안고 살아왔었는데 하늘이 그 소원을 헤아려 드디여 그분의 뜻을 이은 **김정은**위원장님을 맞이할수 있게 되였다는 서울로인의 격정의 토로며 언제인가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녘동포들에게 하지 못했다, 조국통일의 인사도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렬의 력사만 깊어가고있다고 가슴아프게 뇌이셨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숙연함을 금치 못했다는 한 지식인의 이야기는 명실공히 분단 70여년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기다림의 력사이고 생동한 기록이다.

지금 경향은 주야를 모른다.

희대의 위인을 모실 력사의 그 순간을 기다리며 서울이, 온 남녘이 잠들지 못하고있다.

과연 언제 어느때 이렇듯 환희에 휩싸인적 있었던가.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한 기다림속에 낮과 밤을 모르고 설레인적 있었던가.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기다림으로 뜨거운 남녘의 민심에는 막을수 없는 민족의 지향이 비껴있다.

김정은위원장 환영열기는 그분에 대한 민중의 열렬한 경모지심의 일대 정화이다.

언제부터였던가.

남녘의 마음이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평화번영의 새시대, 위대한 민족의 전성기를 앞당겨올 불세출의 위인으로 간직하게 된것은…

정에 쏠리고 뜻에 끌리여 믿고싶고 따르고싶은것이 매혹이라고 한다.

그 존함 태양처럼 빛나시던 때 벌써 민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민중형의 지도자로 북녘민중의 한결같은 숭앙을 받으신분, 그래서 그분은 남녘민중의 마음속에도 한없이 자애롭고 정깊은 어버이의 모습으로 깊이 아로새겨지시였다.

친근하신 그분을 모셔 전체 민중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유일의 리상향으로 이 땅 민중의 한없는 부러움을 자아냈고 천출의 기상과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그분의 령도가 있어 남들같으면 열번도 더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는 봄날의 숲처럼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북녘의 경이적인 현실은 남녘동포들의 무한한 동경과 선망의 눈길을 모았었다.

인격중의 인격은 존엄이고 민족자존의 근본은 힘이다.

날로 위용떨치며 세계앞에 보란듯이 우뚝 솟아오르는 북녘의 종합적국력과 존엄높은 위상은 또 얼마나 가슴후련한 자신심을 배가케 했던가.

우리 민족은 남만 못지 않다는것을,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많던 우리 민족을 이제는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말이 아니라 무비의 실천으로 보여주신 그 현명한 령도력에서 남녘민중은 그분이시야말로 민족정기를 최고로 체현하신분, 민족적힘의 상징이심을 철리로 새기였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했다.

지난 4월의 판문점상봉은 민족에 대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크나큰 충격과 격정속에 절감케 한 일대 사변적계기였다.

장장 70여년 지심깊이 얼어붙은 분단의 장벽을 쩡쩡 가르며 이 땅의 지맥을 이어주고 8천만의 정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통일의 봄, 화해의 봄을 불러온 판문점의 력사적사변에서 온 겨레가 보았고 세계도 보았다.

그분께서 암운으로 뒤덮였던 판문점에 어떻게 밝은 빛을 주시고 분단의 통한으로 얼어든 가슴들을 어떤 훈향으로 녹여주시는지, 새로운 력사의 출발신호탄을 쏘아올리시며 꽉 막혔던 통일에로의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페부로 절감했다.

력사의 그날 희대의 위인충격과 더불어 우리 민중모두는 판문점의 봄과 함께 민족의 머리우에 비쳐드는 따뜻한 봄빛을 느꼈고 그분의 힘찬 발걸음에 실려 마중오는 통일의 새 아침을 그려보았다.

《**김정은**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들었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시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받들 지도자이시다.》

온 경향이 위인열풍으로 끓었다.

온 이남이 소탈하고 진솔한 인간미, 친근하고 겸손한 그분의 위인적풍모에 흠뻑 취했고 그분의 옷차림과 몸가짐, 언행까지도 다 따라하는 《**김정은**신드롬》이 이 땅을 휩쓸었다.

《2018년 남북은 매일 새로운 력사를 쓰고있다.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청년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했다. 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졌다.》

어찌 서울 청년민중당 부위원장의 토로라고만 하랴. 저도 모르게 기다려지는 그분에 대한 소식, 화면으로 뵈옵는 그분의 모습은 매일 매 순간 그대로 경탄과 찬사를 련발케 했다.

그분이 아니시라면 온 행성을 충격과 감동의 열파에 휩싸이게 한 북미수뇌회담과 싱가포르공동성명, 북미관계개선의 새로운 력사에 대해 어찌 생각할수 있었으랴.

그분이 계시여 9월의 평양수뇌상봉도 그렇듯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며 이해의 특대사변으로 기록된것 아니랴.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리도 빠르게 이루어지고있는 알찬 결실, 그 모든 사변의 중심에 바로 천하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계심을 우리 민중은 누구나 절감하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가 담긴 평양공동선언이 전파를 타고 온 행성에 울려퍼질 때의 격동은 또 어떠하였던가.

그 순간 경향민심은 한결같이 해방후 첫 개선연설을 하시던 **김일성**주석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떠오름을 억제할수 없었다.

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국무위원장님을 우러를수록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부강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시던 주석님을 뵈옵는듯 하여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남북의 수뇌분들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함께 올라 굳게 잡은 두 손을 높이 쳐드신 불멸의 화폭앞에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안았던가.

명장면중의 명장면, 남과 북이 한뿌리임을 인식시키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는 찬사가 터져나오고 천지물에 붓을 적셔 통일의 새 력사를 쓰자는 그분의 말씀은 력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라는 격찬이 그칠새 없었다.

백두산을 닮은 **김정은**위원장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이끄실 령수, 온 겨레의 칭송을 한몸에 다 받으실분이시라는 례찬도 드높았다.

《멋진분》, 《민족의 대통운을 알리는 절세위인의 출현》, 《8천만을 이끄실 민족의 위대한 령수》, 《꼭 한번 만나뵙고싶은것이 소원이다.》

겨레의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웨침에는 꾸밈도 가식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따르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향, 겨레의 열렬한 지향으로 되고있다.

그분의 위인상은 8천만의 넋을 완전히 사로잡고 **김정은**숭배열풍은 온 남녘을 휩쓸고있다.

정녕 그렇다.

한 녀류시인도 토로한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은 《70여년 설음의 세월을 건너오실분》, 《8천만 하나로 엮어내실분》, 《하나된 빛나는 조국 밝히실분》, 바로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다.

민족의 앞길 눈부시다

위인을 맞이하고 모시는것은 민족의 최대행운이며 영광이다.

우리 겨레는 력사에 다시 없을 이 대행운을 세기를 이어 누리고있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남북수뇌상봉이 이루어진 파격적인 장면을 본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은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모든 사람들의 영웅》으로 격찬해마지 않았다.

북미관계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력사》를 알리는 싱가포르공동성명이 채택되고 9월평양수뇌상봉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분을 《2018년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 《세련된 젊은 지도자》, 《로련한 국제적지도자》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행성을 뒤덮었다.

세계가 공인하고있는것처럼 그분은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이실뿐아니라 국제정치의 거장이시고 세계진보적인류의 일치한 숭앙을 받으시는 걸출한 위인이시다.

강대국중심의 불합리한 국제정치질서를 정의의 보검으로 평정해나가시는 그분의 매혹적인 정치에 반하여 누구나 경탄을 터치고 그분께서 주도하시는 정치흐름에 합세하려는것은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인류의 마음이 그분께 모아지고있으며 평양행이 세계적추이로 되고있다.

절세의 영웅, 세계적위인을 민족향도의 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은 과연 얼마나 가슴벅찬것이며 찬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 펼쳐질 민족의 앞길은 또 얼마나 무궁창창할것인가.

우리 민중이 그분의 서울방문을 그리도 기다리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의 한 시민단체는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의 력사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것》이라며 《서울방문이라는 중대사변으로 하여 분단의 장벽은 무너지고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불신과 갈등의 앙금까지 완전히 가셔질것이다.》고 평가했다.

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은 민족의 전도,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사로서 그 특대사변의 의미는 아무리 부여해도 결코 다 표현할길 없다.

그분께서 서울에 나오신다는 희소식은 그래서 남녘동포들의 가슴속에서 오래동안 끓고있던 통일의 열망과 함께 평화번영의지를 더더욱 드높여주고있다.

《통일은 그 누구도 되돌릴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단결로 온 세상에 평화와 번영의 빛을 뿌릴 위대한 민족의 전성기가 눈앞에 도래하였다.》

결코 념원이라고만 할수 없고 예측으로만 볼수 없는 미구에 도래할 엄연한 현실이다.

벌써 많은 사변들이 이루어졌다.

대결과 불신의 적대감이 팽팽하게 감돌던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6.15시대때처럼 남북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릴 날도 멀지 않았다.

단일팀으로 출전한 남북의 체육선수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민족의 기상을 과시하며 알찬 열매들을 함께 거두어가고있다.

절세위인께서 열어주신 활로를 따라 통일이 소리치며 마중오고있다.

이제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서울을 방문하시게 될 그 파장은 얼마나 클것인가.

감격에 설레이는 군중, 환영의 열파속에서 그분의 서울방문이 펼칠 평화번영과 통일의 오곡백과는 얼마나 풍성할것인가.

그날은 머지않았다.

그분의 발걸음따라 수천년을 하나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분단의 70여년세월을 일거에 날려보내고 통일된 삼천리강토에서 세세년년 복락을 누려갈 그날은 눈앞에 있다.

남과 북이 잡은 손 놓지 말고 통일로 가자. 활기와 기백을 안고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살자.

그날을 마중해가는 민족의 숨결이 통일의 열기로 더욱 높뛰고있다.

겨레의 앞길에 찬란한 미래가 기약되여있다.

태양이 빛나는 민족의 앞길은 눈부시다.

《반제민전》소속
통일운동가 리수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서울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흠모열풍 날로 고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서울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흠모열풍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국민주권련대와 《한국대학생진보련합》 등 13개의 진보단체들을 망라하고있는 백두청송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연설대회와 예술공연을 크게 조직진행하였다.

연설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답방은 그분의 추진력과 대담성으로부터 나왔다.》,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우리 민족의 하나된 힘이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힘을 압도했음을 증명하는 일대 장거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연설대회가 끝난 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울방문과 평화통일을 념원하는 예술공연 《꽃물결》이 진행되였으며 통일운동가 황선이 시 《백두청송》을 랑송하였다.

연설대회와 예술공연조직자들은 《오늘 행사는 백두청송위원회의 첫 활동이자 신호탄이 되는 자리이다.》, 《앞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경기 등 전국에서 환영공연과 통일행사들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18일 부산의 각계층 시민들도 《**김정은**국무위원장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부산지역 백두청송위원회》결성식을 진행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백두청송위원회의 결성선언문과 활동계획이 발표되였으며 백두산어린이합창단의 노래 《백두산에 올라》와 대학생들의 률동춤 《가자 통일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통일기와 꽃다발을 들고 《남북화해협력은 중요한 문제이며 남북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한 **김정은**위원장님의 서울답방은 핵심적인 사안이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울방문을 적극 지지환영해나섰다.

남조선의 인터네트들에는 《**김정은**위원장 서울방문을 환영한다.》, 《통일을 위해 력사적인 서울방문을 결단해주신 **김정은**위원장님 만세! 만세! 만만세!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어서 오시소, 오신김에 부산도 들리시면 좋을텐데.》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환영글들이 계속 오르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서울한복판에서 진행된 백두청송위원회의 연설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찬양이 쏟아졌다.》,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분위기가 날로 뜨거워지고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분단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거대한 바람을 불러일으킬것이다.》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서울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흠모열풍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금강산관광시작 20돐기념 북남공동행사 진행

금강산관광시작 20돐기념 북남공동행사가 18일과 1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진행되였다.

공동행사에는 북측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남측에서 현대그룹과 정계, 사회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 연설자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고 하면서 시대의 부름에 실천으로 화답해나설 의지들을 피력하였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남과 북을 오가던 발걸음이 멈춰선지 벌써 10년이 되였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더 큰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끊어진 남북인연을 다시 이을수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모르는 길도 아니고 없는 길도 아닌데 이대로 멈춰서있을수는 없다고 금강산관광재개의 절박성을 강조하였다.

리택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강산관광이 10년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더이상 이러한 비극을 지속시킬수 없다고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는 금강산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는것은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평화적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국장은 통일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금강산관광길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프고 민족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하면서 6.15시대의 발전을 힘차게 추동하였던 그때처럼 금강산관광길을 다시 열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자고 강조하였다.

행사기간 참가자들은 금강산관광시작 20돐을 기념하여 공동식수를 하였으며 구룡연일대의 명소들을 돌아보았다.

금강산관광시작 20돐기념 북남공동행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녘겨레의 금강산관광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는데서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평화번영의 길을 밝히는 가장 정당한 선언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첫 조항에서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을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다시금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확약하였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가 시작된지도 어언 73년,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렬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으며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최대열점지역인 서해해상에서 북남사이에 총포탄이 오고가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정세가 한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오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거와 결별하고 이 땅우에 진정한 평화를 안아오기 위해 지금 북과 남은 마음과 뜻을 합치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채택이후 북남사이에는 장령급군사회담들과 군사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이 진지하게 협의되였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군사분야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북과 남이 지난 9월의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약속한것은 겨레의 보금자리인 삼천리강토를 영원히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원하고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나가려는 굳은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선언들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여온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우리 겨레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와 함께 국제사회도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북남선언들이 충실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사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우리 민족은 서로 뜻과 힘을 합쳐 평화번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감으로써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며 조선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준 력사적인 리정표이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김철호

《북의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 한 재미동포녀성의 진정의 토로 *

최근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 재미동포 신은미가 자기가 집필한 도서 《재미동포아줌마 북에 가다》와 9차례의 공화국방문과정에 찍은 100여장의 사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있는 북은 없다.》라는 주제로 공화국의 현실을 소개선전하는 강연을 진행하였다. 신은미동포는 지난 시기 자기가 쓴 도서들을 가지고 남조선각지를 돌며 공화국방문소감을 가지고 강연을 하다가 박근혜패당의 《종북》소동에 걸려들어 2015년에 미국으로 강제추방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비록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안고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진실만을 말하려는 한 인간의 순수한 열정을 가로막을수 없는 법이다. 하기에 그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서부지역위원회와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로스안젤스지역회, 미주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많은 재미동포단체 성원들과 동포들이 참가한 강연회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공화국의 발전상을 그대로 터놓았던것이다.

그는 강연회에서 북부조국에서는 미국의 혹독한 제재속에서도 맨하탄거리와 맞먹는 거대한 거리들이 해마다 솟아나고 훌륭하게 꾸려진 고급살림집들과 문화휴식장소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고 꾸밈없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신은미동포는 북녘사람들도 같은 형제자매라는 긍정적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있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70여년동안 북을 《잔인하고 호전적인 국가》로 《악마화》해온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모략선전에 더는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에 대한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북녘동포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벌리고 그들의 문화를 리해하고 함께 웃고 울며 환호하게 될때 분렬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통일은 성큼 다가올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이 힘을 합쳐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자고 호소하였다.

그의 강연을 들은 참가자들은 북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싶다, 북에 꼭 가보고싶은 욕망이 더욱 커지게 된다,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 북녘사회를 리해할수 있도록 해주어 정말 고맙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뿐만아니라 신은미동포는 며칠전 남조선 경기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도 《영상발제자》로 나서서 참가자들에게 공화국의 참모습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이 가지고있는 북에 대한 편견에 대해 심금을 울리는 토론을 했다. 그는 《북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바로 〈북악마화〉때문이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가짜뉴스와 말도 안되는 반공교육에 의해 철저히 세뇌되여왔다.》고 말하였다. 또한 《방송에 출연하는 몇몇 악질탈북자들이 〈악마화〉에 기여하고있지만 그들의 말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례를 들어가며 《북에 대해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일 경우 〈국가보안법〉위반이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 없으며 불의가 정의를 억누를수는 없는 법이다.

신은미동포의 강연과 토론은 비단 한 해외동포의 심정만이 아니며 공화국의 현실을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람들모두가 터치는 진심의 웨침이다.

그의 말처럼 마음속에 있는 서로에 대한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온 겨레가 화해하고 단합하여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관철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한다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 아침은 성큼 다가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마음으로 뜨겁게 손을 잡았다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2018년 가을철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였다.

평시에 일터에서 련마해온 탁구실력을 경기장에서 펼쳐보이는 애호가들의 수준도 이만저만 아니였지만 강의한 정신력으로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는 장애자들의 모습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그들중에는 얼마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3차 아시아장애자경기대회에 출전하였던 김영록선수도 있었다.

그의 경기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경기에 출전했던 선수가 확실히 다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제3차 아시아장애자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남조선의 선수들과 함께 승리를 마련해가던 당시의 일들에 대하여 듣게 되였다.

그는 올해 제3차 아시아장애자경기대회 탁구경기에서 북남단일팀이 2위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침착하고 경험이 많은 남조선선수와 민첩하고 재치있는 김영록선수의 특기가 조화를 이룬 그들의 경기는 처음부터 관람자들과 참가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김영록선수가 두손이 없는 장애자라면 함께 출전한 남조선선수는 하반신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힘을 합쳐 승리에로 가는 길을 열어나갔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그들의 경기활동이 오랜기간 함께 훈련한 선수들 못지 않게 능란하고 우수한것이였다.

하기에 그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경기장은 언제나 그들을 응원하는 소리로 가득찼다.

그것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합쳐 민족의 힘과 기상을 떨쳐가는 북과 남의 선수들에게 보내는 축하였고 고무였다. 득점에 성공할 때마다 격정에 넘쳐 환성을 터치는 그들의 경기모습에서 관중들은 뜻과 힘을 합쳐 하나가 되여가는 조선민족의 장한 기상을 느끼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는 《나는 우리를 응원해준 그들모두의 손을 뜨겁게 잡아보았다. 맞잡을수 없는 이 두손으로가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잡았다.》고 하였다.

김영록선수는 제3차 아시아장애자경기대회참가를 계기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장애자들도 당당히 한몫할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심정으로 훈련에 박차를 가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미국기발을 찢으며 반미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 활발히 진행

최근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투쟁참가자들은 북남관계의 《속도조절》을 강박하는 미국에 의해 일정에 올라있는 북남협력사업들이 지연되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평화협정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를 비롯한 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은 련일 집회들을 열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각계층이 반미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특히 대학생단체들은 《이 땅의 자주를 위한 대학생 반미전사》를 결성하고 초불시위와 집회, 기자회견, 선전물배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반미투쟁을 벌리고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사회전역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언론

이전 《정권》의 역적행위 폭로

14일 남조선 《련합뉴스》는 박근혜역도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관계구축을 운운하며 일제의 과거죄악을 덮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역도는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일본과의 성노예문제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줄일 목적으로 《화해, 치유재단》을 내오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기각시키려고 시도하였다.

2016년 4~5월경 역도는 6월이면 《화해, 치유재단》이 설립되게 되니 8월까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언론은 실제로 박근혜의 지시이후 법원행정처는 이전 《정부》와 짜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배상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공정들을 속도있게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0월 《국정》롱락사건이 발생하면서 박근혜의 시도가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본사기자

일본의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떨쳐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 113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7일 일본의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단체는 113년전 일제가 조작한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개탄하였다.

최근 일본은 일본전범기업들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등 오늘까지도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있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단체는 일본이 오히려 우리 민족의 고유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재침야망을 드러내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제의 죄악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고 일본의 침략적근성을 뿌리뽑아버리기 위한 반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과거죄악을 부정하는 일본의 행위 폭로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놓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일본당국을 비난하였다.

언론은 지난 9일 일본외상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남조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악담을 퍼부었다고 하면서 과거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선민족에게 강제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명칭을 《구 조선반도출신 로동자》로 통일시켜 사용하려는 일본당국의 처사는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고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의 불법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의 연장이라고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만평 아직도 《종북》타령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을 보다 (3)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공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매 장, 매 경이 다 인상적이였지만 그중에서도 제3장 제5경 《우리 장단 멋이로세》의 흥취는 아직도 나의 가슴속에 큰 여운을 남기고있다.

1 200여명의 가야금수들과 민족타악기수들, 무용수들이 펼치는 이채로운 출연으로 아름다운 민족적정서를 그득히 안겨주는 형상은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새로운 음악형상이다.

지난 시기의 조국방문들을 통하여 나는 공화국에서 민족악기인 가야금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음색과 형상의 특성을 살려 가야금병창, 가야금독주와 병창, 가야금병창과 합창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시켜온데 대하여 들은바 있다.

그런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가야금대병창형식은 또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있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어깨가 절로 올라가는 가야금대병창은 조선민족음악예술의 발전모습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민요 《모란봉》을 기본선률로 하고 여기에 우리 겨레의 사랑을 받고있는 민요 《아리랑》의 선률을 삽입하여 민족적흥취와 멋을 살리고있으며 가야금수, 민족타악기수, 무용수들이 조선옷을 입고 가야금과 장고의 연주, 무용을 특색있게 결합하여 펼치는 모습은 얼마나 장관인가.

나와 우리 동포들은 가야금의 감미로운 선률과 어울려 흥을 돋구는 매혹적인 장고춤이 무대에 펼쳐졌을 때 저도 모르게 일어나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다.

드넓은 장내에 충만되는 은은하면서도 박력있는 가야금의 독특한 음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민족음악의 아름다운 정서를 한껏 느끼게 하였다.

특히 70고개를 가까이하는 연주가와 40대나이의 연주가, 8살난 나어린 연주가가 서로 어울려 평양의 모란봉 을밀대를 무대배경으로 민족적정서가 짙은 음악형상을 펼쳐가는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음악유산을 대를 이어 지켜가고 더욱 빛내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종목은 가야금대병창만이 아니였다.

제3장 제6경 《민족의 기상》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하는 태권도집체출연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었다.

홍그러운 민요의 선률장단과 기름진 무용형상으로 탐스러운 열매 무르익는 황금산을 노래하고 농악무와 함께 건드러진 상모춤을 추며 황금벌의 새 력사를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 제3장 제4경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는 또 얼마나 황홀한가.

우리 동포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공연을 보면서 조선민족의 장단이 제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출연자들이 우리의 민족옷을 입고 우리의 민요를 부르며 우리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동포들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였다.

재중동포 김희진

훌륭한 미래를 키워내는 우월한 교육제도

새싹이 튼튼하게 자라나야 나무가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날수 있는것처럼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자라나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후대를 키우는 사업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관건적인 사업으로 간주되고있는것은 아니다.

실례로 발전되였다고 하는 어느 한 나라에서는 《대기아동》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다.

보육교양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이 상품화, 시장화되여있는것으로 하여 탁아소나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이 제한되여있고 보육원들의 수가 부족하여 수십만명의 학령전어린이들이 접수신청을 하고서도 빈자리가 나질 때까지 기다리고있다고 한다.

하기에 이를 두고 이 나라의 한 언론이 《녀성들이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목표를 세운다고는 하지만 〈대기아동〉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기때문에 녀성들은 해고의 첫번째 대상이 되고있다. 해산적령기의 녀성들이 아이를 낳는것을 바라지 않거나 낳을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의 고령화문제가 빨라질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한것은 《대기아동》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매개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지위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되고있다.

탁아소, 유치원들에서는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며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간식을 충분히 보장하고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하며 어린이들의 지능을 적극 계발시키고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재능, 튼튼한 체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보육원, 교양원대렬을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있다.

지난 10월 로씨야에서는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가 열렸다.

수십개 나라의 나어린 음악신동들이 참가한 축전에서 공화국의 경상유치원 어은금3중주단은 노래 《웃음많은 우리 집》을 우리 민족의 자랑인 어은금의 맑은 음색과 다양한 연주수법으로 특색있게 형상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모든 참가단체들이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한번만 출연하게 되여있는 축전의 관례를 깨고 이어 세계명곡을 더 연주하였다.

이들의 공연을 본 모스크바의 한 시민은 《어은금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음색과 울림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세계적인 예술신동들을 많이 배출하고있는 조선의 경상유치원의 조기음악교육은 최고의 수준이다. 조선의 훌륭한 교육제도가 뛰여난 재능동이들을 키워냈다.》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흰눈처럼 순결한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사회제도의 성격과 시대상이 거울처럼 비낀다.

비옥한 토양과도 같은 우월한 교육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나라의 밝은 미래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정경만

행복한 어머니들

공화국에서는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고 뜻깊게 쇠고있다.

어머니,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고상한 그 부름을 되새기느라니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내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른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다.

시골에서 홀로 나를 키우시느라, 아버지를 일찍 잃은 설음을 당할가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때로는 아픈 매도 들군 하시던 정겹고 다심하신 나의 어머니…

이제는 나도 자식들을 가진 어머니이지만 날이 갈수록 그리워지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생명의 천체》라 불리우는 이 지구의 오늘도, 장구한 인류력사도, 수천억년의 래일도 어머니란 이름을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따뜻한 미소, 다심한 사랑, 아낌없는 헌신…

하기에 어느 한 시인은 《어머니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강》이라고 노래했던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한 나라의 수도에는 어머니사랑을 체현한 유물들이 전시된 어머니박물관이라는것도 있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어머니들을 위한 날을 제정하고 기념하고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며 변함이 없는 어머니들의 사랑이 어느 사회에서나 다 존중받고 신성시되는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제나름의 《발전》과 《문명》에 대해 떠들지만 녀성문제, 어머니문제는 여전히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로 되고있는것이 오늘 이 행성의 현실인것이다.

나는 여러차례에 걸친 조국방문의 나날을 통하여 공화국의 어머니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엄높은 삶을 누려가는 녀성들이라는데 대하여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어머니들의 행복과 불행

나는 몇년전에 알게 된 강원도에 사는 송금숙녀성의 진정어린 목소리에서 조국의 어머니들이 누리는 참다운 행복과 내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겪고있는 가슴아픈 불행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저도 이번에 모성영웅이 되였습니다. 자식을 9명 낳은것뿐인 저에게 나라에서는 영웅메달을 달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들딸들을 훌륭히 키우는것으로써 받아안은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진정어린 이 말속에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마음이 비껴있는것이 아닌가.

평범한 산모를 위해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여나면 은장도와 금반지까지 안겨주는 나라,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특별히 우대해주고 영웅으로까지 내세워주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인것이다.

이것은 인간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는 공화국에서 어머니들의 행복상이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낳아 키우는것은 녀성의 사회적의무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머니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한 녀성은 태여난지 불과 10분도 되나마나 한 갓난아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돈이 없기때문에 키울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그처럼 애지중지하던 제자식을 목눌러죽인 한 부부 역시 살인동기에 대하여 학비난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낼수 없게 되였기때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서로 다른 두 제도에서 사는 어머니들의 현실을 놓고서 참된 모성애를 지닌 훌륭한 어머니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고 빛내여주는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진정한 삶과 행복의 리상향이라는것을 폐부로 절감하게 되였다.

녀성존중의 화원을 보며

지난해 나는 조국에서 어머니날을 맞게 되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공화국의 녀성들이 이날을 어떻게 쇠고있는지 알고싶어 나는 한 녀성과학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에 자리잡고있는 그의 집에 들어서니 온 가정의 축복속에 축하연이 한창이였다.

방벽면에는 그가 받은 많은 메달들과 증서들이 걸려있었다.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로동자의 딸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이렇게 박사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얘기하는것이였다.

내가 사는 땅에서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였다.

녀성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것은 초보적인 도덕륜리이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녀성들의 존엄과 인격이 잡초처럼 마구 짓밟히고있다.

《녀성들이 결혼하고도 일할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대책이 없고 보육과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문제들이 전적으로 녀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를 적게 낳는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인류문명의 표본을 외우는 서방세계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녀성들과 어머니들의 목소리이다.

가정의 꽃, 사회의 꽃으로 누구나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어머니들이 정말 부러웠다.

나도 어머니이다.

정말이지 인생을 다시 시작할수만 있다면 공화국의 품속에서 조국의 어머니들처럼 사랑과 행복을 한껏 느껴보고싶다.

공화국이야말로 리상적인 녀성복지사회, 어머니들의 삶의 리상향이다.

재카나다동포 정송죽

높은 실력과 리상을 지니고

몇해전 어느 한 나라에서 발행한 국제잡지 《정보와 콤퓨터보안에서의 발전》에는 제10차 국제보안대회에서 발표된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의 론문 58건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18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실리였다.

그중에는 《아핀자리표계에서 타원곡선연산을 위한 새로운 빠른 알고리듬들》이라는 론문도 있는데 그 글은 공화국의 한 교원이 집필한것이다.

집필자의 이름은 조명성, 금성제2중학교의 29살난 교원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보보안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인식한 그는 최첨단을 돌파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론문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타원곡선암호실현에서 제기되는 타원곡선연산을 고속화하기 위한 알고리듬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론문은 자료의 암호화와 복호화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정보통신설비설계의 복잡성과 제작원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도를 제시한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깊은 관심을 모았다.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과학기술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준 조명성은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워온 교육자이다.

청진시 송평구역에서 나서 자란 그는 인민학교(당시)를 졸업하고 근 20년전에 금성제2고등중학교(당시)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박사 부교수인 그의 아버지가 공부한 교정이기도 하였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이며 그는 공부를 직심스럽게 하였다. 하여 남다른 실력을 쌓아나갔고 졸업무렵에는 교원들과 함께 가치있는 프로그람개발에 참가하여 한몫 단단히 하였다.

그 성과를 귀중히 여겨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그는 고마움의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교정을 나선 그는 자기에게 전공분야의 공부를 더 깊이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준 어머니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저 더욱 분발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탐구의 나날이 흘러갔다.

2개의 외국어에 완전히 정통하였으며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IC카드결제체계》를 개발하여 전국에 도입한 성과를 안고 그는 몇해전부터 모교의 교단에 섰다.

교육과정안집행의 짬시간에도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벌려 학위를 받은 그는 수재양성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맡은 학생들은 전국적인 프로그람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으로 하여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있다.

조명성은 공화국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교육자이다.

하지만 그의 리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기술분야의 실력가가 되리라. 세계패권을 쥘 콤퓨터수재들을 키우리라.

그는 오늘도 조국을 과학으로 비약시키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가는 길에 청춘의 꿈과 재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서—

민족음악예술인후비들을 육성해나간다

- 함흥예술학원에서 -

민족음악을 발전시킬데 대한 국가적인 정책을 받들고 함흥예술학원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민족음악교육에 큰 힘을 넣고있다.

학원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민족음악의 우수성과 고유한 특성을 잘 체득시키는데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학원에서는 기량발표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민족음악작품들을 적극 내세움으로써 교원들과 학생들이 민족음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민족음악발표회를 통하여 학원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민족음악에 깃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건전하고 고상한 사상감정과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를 새기고있다.

특히 민족기악강좌의 교원들은 민족음악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는 교육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자각하고 자신들부터가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지니기 위하여 학습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민족적선률과 장단을 비롯한 민족음악의 표현수단들과 연주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교수과정에 반영하면서 효률적인 교육방법들도 끊임없이 탐구해나가고있다.

교원들은 학생들이 민족음악의 고유한 특성을 원리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연주에 구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과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학원의 교원들은 민족음악교육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재곡들을 창작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조선민요들과 최근에 훌륭히 창작된 우수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지고 다양한 민족기악독주곡, 민족기악중주곡들을 창작하여 교육사업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또한 학원의 일군들은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가야금, 소해금, 장고를 비롯한 민족악기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움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학생청소년예술개인경연 민족기악부문과 성악부문에서 이 학원의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학원의 교육사업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오늘도 함흥예술학원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더 많은 민족음악예술인후비들을 훌륭히 키워내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구룡폭포는 우리 나라 3대명폭의 하나로, 금강산 4대폭포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폭포로 널리 알려져있다.

수십m되는 높은 벼랑우에서 수정같은 맑은 물이 쉬임없이 떨어지는 웅장하고 기세찬 구룡폭포는 장관을 이룬다. 폭포벽높이 약 100m, 폭포의 높이 74m, 길이(사거리) 84m, 너비 4m나 되는 물량이 많은 아름다운 폭포이다.

하늘땅을 뒤흔드는듯 한 폭포소리, 천갈기 만갈기로 부서져 그대로 억만개의 진주를 이룬 물방울, 끊어진 벼랑에 천길 흰비단을 옹근 필로 드리운듯 한 힘찬 물기둥, 거기에 뿌리박은 무지개가 어울려 장쾌하고 웅대하며 위압적인 그 기상, 그 아름다움으로 하여 천하절승이다.

폭포아래에 깊이 13m되는 절구통같이 동그랗게 패인 돌확에 서슬푸른 물이 소용돌이치는 못이 구룡연이다.

여기에는 금강산을 지키는 아홉마리의 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마치 푸른 구슬을 꿰여놓은것처럼 층층이 련달려있는 8개의 큰소는 팔담이라고 부른다. 구룡폭포의 웃골짜기에 있다 하여 상팔담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경치가 좋고 물이 맑아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금강산팔선녀》전설이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인물주제화로 화단을 빛내인 김홍도

사실주의그림의 거장 김홍도는 18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화단의 대표적인물로서 이름을 날린 화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자를 사능, 호는 단원, 단구, 서호, 고면거사, 취화사 등으로 불렀으며 도화서 화원으로 있다가 그림을 잘 그려 그에 대한 표창으로 현감벼슬까지 받았다.

당시로 말하면 실학의 영향이 미술분야에도 미쳐 새로운 형식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있었다. 이 시기에 창작활동을 벌린 김홍도는 그 누구보다도 실학사상에 기초한 사실주의적그림창작의 앞장에 섰다.

당시 봉건량반들은 그림을 그려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산천과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그린것이 아니라 화려한 궁중생활이나 인물들, 다른 나라의 풍경이나 인물들을 그려내고있었다. 또한 옛것을 숭상하였으며 현실에서 숨쉬는 인간보다도 케케묵은 풍경화나 그리였다.

그러나 김홍도가 그린 인물들은 근로하는 인민들의 산 모습이였다. 그는 소박한 필치로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많은 인물주제화들을 그렸는데 같은 시대 인물화가들과는 달리 인민들의 풍부한 정서와 생활을 담기에 노력하였다. 그는 량반관료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증오하였으며 농쟁기를 들고 일하는 농민들의 생활과 감정에 애착을 느끼였다.

그는 인물성격창조에서 진실성과 심리묘사의 예리성, 표현적인 구도와 독특하고 힘있는 선에 의한 형태의 정확성 등으로 하여 개성적인 특징이 뚜렷하였다. 그는 종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형상수법을 창조하였는데 그림의 중심에 언제나 인물을 배치하고 정황과 년령심리적성격에 맞는 얼굴표정, 특징적인 자세와 운동표정을 포착하여 그려냄으로써 형상을 한층 돋구었다. 특히 활달하면서도 섬세한 필치, 탄력있는 선에 의한 대상의 묘사는 화가의 능숙한 필치를 잘 보여주고있다.

김홍도의 그림들로는 《집짓기》, 《대장간》, 《서당》, 《씨름》, 《춤》, 《논갈이》 등이 남아있으며 《고기잡이》, 《구룡폭》, 《만폭동》, 《달밤》 등 풍경화들과 《범》, 《꿩》, 《매미》 등 화조령모화들, 화상그림, 판화, 종교화를 비롯하여 실로 많은 그림들이 남아있다.

김홍도의 그림들은 당시 그 누구와도 견줄수 없는 뛰여난 회화적경지에 이른 새로운것이라는데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가 그려낸 인물들은 모두가 소박하고 락천적이며 굳센 의지의 소유자들로서 한결같이 로동속에서 형상되였다.

김홍도는 먹으로 그림을 그리던 조선봉건왕조시기 회화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형상기법에서 사실주의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회화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본사기자

민족문화유산 《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전해져내려온 여러 무술동작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옛 무술도서이다.

《무예도보통지》는 문자그대로 무예를 그림으로 해석한 책이라는 뜻으로서 조선봉건왕조 22대왕인 정조(1777—1800년)의 령으로 편찬되고 정조가 직접 서문을 쓴 《어찬》(임금이 직접 관여하여 만든 책)도서로서 1790년 4월에 간행되였다.

한문으로 된 책과 별도로 조선글로 알기 쉽게 쓴 《무예도보통지언해》(총보 1권)가 함께 간행되였다.

책은 각종 칼쓰기와 권법, 창쓰기, 곤봉쓰기 등 여러가지 무술동작들을 그림으로 게시하면서 설명하였다.

그림은 당대의 화가인 김홍도가 그리였고 책에 대한 설명과 편찬에는 실학가로 유명한 박제가와 리덕무가 참여하였으며 무술의 구체적인 기술지도는 훈련도감의 무사 백동수가 맡아하였다.

이렇게 출판된 책에는 권법총도, 본국검총도, 쌍검총도, 협도총도, 등패총도, 월도총도, 예도총도, 왜검총도의 순서로 각이한 무술동작들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였다.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무예동작들에는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전해지는 조상전래의 전통적인 무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다른 나라들의 무술동작들이 첨가되여있다.

책에는 25개 권법의 기본동작들과 함께 거기에서 파생된 48개의 권법동작들이 그림을 받쳐 설명되여있다.

여기에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써오던 전통적인 택견동작들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조선봉건정부는 임금이 직접 서문을 쓴 책이고 그 의의 또한 큰것으로 하여 《무예도보통지》를 매우 귀하게 다루었다.

왕실출판기관인 교서관에서는 극히 제한된 부수만 찍은 다음 왕실도서관인 규장각과 국가사고들에 중히 보관하였으며 나머지 몇부만을 지방의 주요군영들에 내려보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석전(돌팔매싸움)을 비롯한 상무적인 모든 무술경기들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것과 동시에 국가적인 사고들을 습격하여 국보적인 희귀본들을 강탈해갔으며 조선무술의 기본내용이 집대성되여있는 《무예도보통지》를 저들의 조선강점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보고 단군관계서적을 포함한 숱한 조선관계도서들과 함께 략탈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이 사소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잘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민족문화유산들을 적극 수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1952년에 평안도지역에서 《무예도보통지》가 발굴되게 되였다.

현재 《무예도보통지》는 인민대학습당에 소중히 보관되여있다.

《무예도보통지》는 2016년 5월, 201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오늘도 《무예도보통지》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넋을 전해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있다.

본사기자

변하지 않는 고구려무덤벽화의 색채

고구려무덤벽화는 고구려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 슬기와 재능을 훌륭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고구려무덤벽화에서 세상사람들이 특별히 감탄하고있는것은 오늘까지도 벽화들의 색채가 그대로 보존되고있는것이다.

고구려무덤벽화에 리용된 채색재료는 천연수성안료이다.

이 안료는 물기조절에 따라 진하게 또는 연하게, 두껍게 혹은 엷게 칠할수 있고 바탕재료에 따라 각이한 농담조절로 독특한 색채적효과를 낼수 있다.

고구려화가들은 회죽을 벽에 바르고 마르기 전에 여러가지 색재료들로 다양한 채색원리들을 잘 활용하여 묘사대상의 색채적특성이 선명하게 살아나도록 함으로써 사물현상을 아주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렇게 그려진 고구려무덤벽화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색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였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채색법은 중세 전기간 다듬어지고 세련되면서 점차 민족적정서가 반영된 전통채색화의 화법적특징으로 되였다.

다양한 내용과 대담한 구상, 풍부한 회화적언어와 높은 표현기교로 일관된 고구려무덤벽화는 중세 우리 나라 회화의 토대로, 본보기로 되였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회화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유네스코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은 고구려무덤들의 벽화들을 분석해보고 그것들이 매우 발전된 기법으로 훌륭하게 형상되였다는것을 인정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울릉도를 찾아온 안룡복(1)

글 홍기문, 그림 김영희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로 둘러싸여있는 울릉도란 섬은 경치도 아름답거니와 물산도 아주 풍부한 곳이다. 거기서 나는 왕대나무는 어른의 한아름이 넘으며 복숭아씨로는 술잔이나 되박을 만들만큼 엄청나게 크며 좋은 향나무와 희귀한 약초가 많은것은 말할것이 없고 그 섬주위에서 특별히 단 미역과 굵은 전복이 나오는것이다. 일찌기 우산국이란 나라로서 따로 떨어져서 산적도 있다고는 하나 서기 512년부터 신라에 귀속해서 우리 나라의 판도로 들어왔다. 그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에 이르는 동안 어느때에는 백성들이 그 섬에서 사는대로 내버려두기도 하고 또 어느때에는 백성들을 륙지로 끌어내와 그 섬을 비워두기도 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나라의 판도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임진조국전쟁이 있은 후 우리 나라에서 울릉도를 비워놓은것을 틈타서 교활한 왜놈들이 살금살금 기여들었다. 아직 대담하게 제놈들이 아주 자리를 잡고 살지는 못했지만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물고기도 잡고 전복도 따고 대나무, 향나무도 베여갔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훨씬 떨어져서 또 한개의 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섬을 우산도라고 불러왔다. 울릉도가 왜놈들이 나막신자국으로 더럽혀지고있으니 일본에서 울릉도를 오고가는 길목인 우산도는 더구나 말할나위가 없었다. 놈들은 울릉도를 《다께시마》(대섬이란 뜻), 우산도를 《마쯔시마》(솔섬이란 뜻)라고 일본이름으로 고치여 불렀다. 교활하게도 우리 나라에 보내오는 외교문서에까지 가끔 그런 새 이름을 써서 우리 나라의 동정을 엿보려 하였다.

그 당시의 비겁하고 무능력한 량반통치계급은 이런줄 모르지 않으면서도 찍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다. 이렇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울릉, 우산 두 섬이 우리 나라의 판도로부터 거의 떨어져나가게 된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거의 한세기가 차가는 때였다.

동래부의 배군 안룡복이 부산포의 일본사람과 사귀여 일본말을 잘하였다.

그는 울릉도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그 풍부한 물산이 몽땅 일본놈에게 략탈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자라서 모험심과 의협심이 풍부한 그는 우리 땅에서 나는 물산을 어째서 남에게 빼앗기느냐고 속으로 몹시 분개했다.

1693년 여름 안룡복은 드디여 같은 배군인 박늘둔과 힘을 합쳐 큰 배 한척을 장만한 다음 관청에서 알지 못하게 배군, 고기잡이군 등 40여명을 싣고 순풍에 돛을 펼쳐 쉽사리 울릉도로 들어갔다. 때마침 왜놈은 보이지 않으나 이곳저곳에 솥을 걸고 불을 땐 자리와 함께 낯선 그릇쪼각, 헝겊나부랭이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서 그들이 자주 드나든 자취는 아주 력력하였다. 40여명의 사람이 2~3일 두고 약초를 캐들이고 나무를 찍어들이고 전복과 미역을 따오고 한창 맛이 들려고 하는 복숭아를 따서 싣고나니 짐이 무거워 배가 위태할 지경이였다. 박늘둔은 이제 고만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몇행보를 더해보자고 하는데 안룡복이 이번에 아주 일본놈들을 만나서 혼을 내놓아야 다음 행보도 편안할것이라고 하면서 하루이틀 더 쉬여가자고 하는것이였다. 박늘둔이하 40명이 모두 안룡복의 담력과 수완을 잘 알고있는 터이라 아무도 그의 주장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 갓 잡은 생선을 회치고 술두루미를 기울여 남은 술을 다 쏟아놓고 한참 즐겁게 노는 판에 일본어선이 두어척 들어오더니 배에서 근 40명의 일본어부들이 쏟아져내려왔다. 이편에서 술자리를 걷어치우고 일어서는데 저편에서 머리에는 상투를 짰고 허리에는 칼을 차서 다른 어부들과 좀 다르게 차린자가 한놈 썩 나서면서 말을 건니였다.

《너희는 누구냐?》

안룡복이 류창한 일본말로 대답하였다.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허가도 없이 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는것이냐?》

그러자 안룡복이 준엄한 어조로 꾸짖었다.

《울릉도는 우리 나라의 섬이다. 이 섬이 우리 나라에 속한다는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너희놈들이야말로 남의 나라에 침범해들어와서 무슨짓을 할 작정이냐? 누구더러 도리여 무엇이라고 허물을 잡고 덤벼드는것이냐?》

물론 머리수로는 우리 편과 저놈들이 비슷하나 일을 벌렸다가는 뒤수습이 곤난할것만은 뻔하였다. 안룡복이 이것을 타산하고 슬그머니 어조를 바꾸면서 두편의 배가 다 각각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자기와 박늘둔 두사람은 일본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이 섬에 대한 장래의 문제를 결정하자고 제의하였다. 왜놈들이 저희끼리 한동안 수군거리고나서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박늘둔은 다소 겁을 집어먹어서 일본까지 갈 생각이 없었지만 자기 혼자 반대하고 나설수도 없었다.

안룡복과 박늘둔이 일본배에 실리여 맨 처음 도착된 곳은 오랑도라는 일본의 조그만 섬이였다. 이 섬의 도주는 작년에 제 애비가 죽고 애비의 자리를 물려받은자로서 나이도 아직 젊고 성질이 대단히 경망스러운 위인이였다. 제딴에는 한껏 위엄을 부려서 두사람을 굴복시켜보겠다고 결심하고 칼든 놈, 창든 놈, 몽둥이 든 놈을 쭉 늘어세운 한가운데로 두사람을 불러들였다. 안룡복도 그만 눈치를 미리 챌수 있던 까닭에 박늘둔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조금도 비겁하게 굴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점잖은 태도로 태연스럽게 들어갔다.

도주란 젊은자가 높직한 자리에 올라앉고 두사람은 그앞으로 얼마만큼 떨어져서 낮게 앉으라고 하니 안룡복이 앉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우리는 외국사람이다. 일본사람이 아니다. 도주가 우리와 만나자면 외국사람으로 대접해야 할것이 아니냐? 마치 자기 부하처럼 우리를 대접하니 이 무슨 례절이란 말이냐?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례절에 어그러지는 대접은 받을수 없다!》

도주 좌우에 늘어섰던 놈들이 와하고 덤벼들어 억지로 앉히려고 한즉 안룡복은 추상같은 호령을 내리였다.

《우리는 너희를 그래도 이웃으로 알고 두 나라사이의 일을 의논하자고 찾아온것이다. 이렇게 야만스러운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단 두사람이 맨몸으로 오지를 않았을것이다. 좋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나라사이에는 말썽이 일어날것이요, 너희 섬도 편안치는 못할것이다. 피차간 좋은 말로 서로 의논해서 조용히 처리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안룡복의 정당한 주장과 류창한 일본말에 감탄하여 도주란자의 코대는 그만 꺾이여버렸다.

건강에 좋은 무우

무우는 배추과의 한두해살이남새작물로서 우리 나라에서 10세기이전부터 재배되였다.

무우에는 사람의 몸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무우잎에는 몸안에서 비타민A로 되는 카로틴과 칼시움이 많으며 무우뿌리에는 디아스타제와 비타민C가 풍부하다.

예로부터 무우는 여러가지 병치료에 널리 리용되여왔다. 그래서 무우가 나는 계절에는 의사가 필요치 않다는 말도 전해지고있다.

고려의학고전에는 《무우는 술독은 물론 어혈을 풀어주고 음식을 잘 소화시켜주고 대소변이 잘 나가게 하며 천식을 다스린다.》, 《무우를 생식하면 갈증과 설사를 멈추고 무우를 삶아먹으면 가래가 없어진다.》고 씌여져있다.

이것은 무우가 소화불량과 만성기관지염, 천식, 감기, 기침, 신경통 등에 좋으며 무우즙은 식중독을 해독하며 지혈, 소독, 열내림작용을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무우를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되고 물고기나 조개류와 함께 먹으면 비린내와 독성을 없앨수 있다.

무우잎은 비타민A, C와 Ca(칼시움), Fe(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것으로 해서 생잎이나 말린잎도 모두 식용에 리용할수 있는데 빈혈이 심한 사람들에게 더욱 좋다.

잠자기 전에 무우를 조금씩 먹으면 소화가 잘되고 삶아먹으면 위를 보호할수 있다.

무우는 매일 또는 하루건너 한번씩 100~150g씩 먹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유모아

이상한 《짐승》

엄마가 아들애에게 말을 배워주고있었다.

《꼬끼요, 꼬끼요 하는건 뭐라고 하나요?》

《닭이라고 해요.》

《박박, 박박 하는건 뭐라고 하나요?》

《오리라고 해요.》

《꿀꿀, 꿀꿀 하는건 뭐라고 하나요?》

《돼지라고 해요.》

불쑥 아들애가 엄마에게 물었다.

《야, 야 하는건 뭐라고 하나요?》

《야, 야 하는 짐승은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나보구야, 야 하지 않나요?》

《…》